

GS칼텍스, 정유·유탄유 호조… 바이오·AI 투자 여력 확대

3분기 재고손실에도 정제마진 견조
유탄유 가격 강세로 수익성 뒷받침
美 수출액 두 달간 전년비 266% 증가
GS AI데이터센터 추진 힘 보탬 등

GS칼텍스가 정유·유탄유 부문의 호조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익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확보한 이익은 바이오·리사이클링 등 신사업에 활용하는 한편 GS그룹의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투자 여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3분기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로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감소하겠지만 정제마진과 유탄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며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GS칼텍스는 2분기 정제마진 확대와 유탄유 가격 상승에 힘입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다. 매출은 16조67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GS칼텍스 유탄유 글로벌 물류센터 전경.

/GS칼텍스

익 2조5507억원과 당기순이익 1조8603억원을 기록해 모두 흑자로 전환했다.

특히 유탄유 부문은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에 따른 유탄유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탄유는 자동차 엔진오일과 산업용 유탄유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료다.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액화연료(GTL)시설인 펄GTL의 가동 중단이 있다. 지난 3월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있는

셸과 카타르에너지의 합작 설비인 펄 GTL이 피해를 입으면서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이 시설은 고급 유탄유의 원료인 그룹 3 유탄유의 전 세계 공급량 가운데 약 30%를 차지해온 만큼 가동 중단 이후 글로벌 공급이 줄고 가격도 상승했다.

중동산 유탄유 공급이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정유사들은 미국 시장의 대체 공급처로 부상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5~6월 국내 유탄유의 미국 수출액은 3억 6249만달러로 전년 동기(9906만달러)보다 약 266% 증가했다.

정유·유탄유에서 확보한 이익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공동 투자한 인도네시아 바이오 원료 정제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바이오 선박유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GS칼텍스의 실적 개선은 지주사 GS의 투자 여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유·유탄유 사업에서 확보한 이익이 GS칼텍스의 친환경 신사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룹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GS는 강원 동해시에 2028년까지 1.2기 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2.4GW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과 전력 공급 역량을 결합해 급증하는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GS칼텍스의 실적 개선으로 신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커진 만큼 정유·유탄유 부문에서 확보한 이익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GS그룹이 보유한 발전사업 역량을 활용한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구체화되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팅크웨어, 생활가전·블랙박스 투톱 ‘성장’

생활가전 비중 3년 새 두 배로 늘어
2분기 별도 영업익 12억 흑자 전환
북미 규제에 블랙박스 수요 확대 기대

팅크웨어가 블랙박스 제조·판매 등 본업을 바탕으로 로봇청소기, 음식물 처리기 등 환경생활가전 제품 판매까지 장착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분기 들어선 계열사를 제외한 티크웨어 별도 기준으로 53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특히 영업이익이 12억원으로 흑자 전환하며 올해 실적 전망이 밝아졌다.

20일 티크웨어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반기 현재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환경생활가전이 65%, 블랙박스가 32.4%를 각각 차지했다. 이외에 나머지 2.6%가 내비게이션 등 지도 부문 사업이다.

팅크웨어는 지난 2021년 말부터 로봇청

소기 ‘로보락’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하며 몸집을 크게 부풀렸다. 로보락의 인기에 힘입어 총 5366억원의 매출을 거둔 지난해의 경우 환경생활가전 부문에서만 346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블랙박스 부문(1704억원)에 비해 두 배 많은 수치다.

로보락 판매가 꾸준히 늘면서 티크웨어 전체 매출에서 환경생활가전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3.2%(2022년)→49.9%(2023년)→64.8%(2024년)→64.6%(2025년)로 점점 늘고 있다. 이 기간 연결 기준 매출도 3367억원(2022년)에서 5366억원(2025년)으로 크게 뛰었다.

팅크웨어는 로봇청소기 외에도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물걸레청소기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베스트셀러인 로보락은 A/S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티크웨어는 반기 연결 기

준으로 133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 관계자는 “직전 분기 메모리 등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저하됐지만 글로벌 공급 단가 조정과 물량 확대 효과가 반영되면서 별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면서 “최근 북미 시장 내 중국산 제품 규제가 강화되면서 완성차 공급을 통해 품질과 기술력을 검증받은 티크웨어 블랙박스가 관련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티크웨어는 블랙박스를 통해 축적한 주행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인식과 객체탐지 등 자체 비전(Vision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왔다.

회사 측은 이 같은 Vision AI 역량을 로봇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대 적용을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와 완성차 OEM, 모빌리티 기업을 대상으로 한 IP 수익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20일 전북 전주시 라한호텔에서 열린 ‘전북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에서 (왼쪽 5번째부터)박춘원 전북은행장, 김동구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이원택 전북도지사, 노용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기부

1000억 규모 ‘1호 지역성장펀드’ 출범

전북 시작으로 지역 벤처투자 본격화
모태펀드 600억 등 17개 기관 참여

제1호 ‘지역성장펀드’가 전북에서 출자자 모집을 끝내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1000억원 규모로 결성되는 해당 펀드는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육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전북 전주 라한 호텔에서 ‘전북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을 열고 전북 벤처모태펀드 출범을 알렸다.

지방투자플랫폼인 지역성장펀드는 지

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 및 운영하는 지역 모펀드(Fund of Funds)다. 정부는 비수도권 14개 각 지역에 최소 1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45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의 모펀드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1월 ‘2026년 지역성장펀드 참여 지방정부 모집공고’에서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전남·광주) ▲전북 등 5곳을 선발했다. 이 중 가장 먼저 결성된 전북 지역성장펀드는 모태펀드의 600억원을 포함해 전북, 익산시, 정읍시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김승호 기자

전기차 보조금 수요 엇박자… 승용 ‘남고’ 화물 ‘바닥’

160곳 중 95곳 화물 선정률 더 높아
소상공인·농업인 구매 차질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중 승용차 물량은 남아 있지만 화물차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곳이 상당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과 화물에 나눠 배정된 물량이 실제 수요와 엇갈리면서 전기트럭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0개 지자체 가운데 승용차 선정잔여는 남아 있지만 화물차 선정잔여가 0인 곳은 17곳이었다.

수원은 승용차 선정잔여가 651대인 반면 화물차는 0대였다. 구리도 승용 218대·화물 0대, 광명=120대·0대, 태안=117대·0대로 나타났다. 칠곡 역시 승용차는 103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화물차는 남은 물량이 없었다.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 이미지.

/현대차

화물차 물량의 소진 수준이 승용차보다 높은 곳도 적지 않았다. 전국 160개 지자체의 공고대수와 선정대수를 차종별로 비교한 결과 95곳(59.4%)에서 전기화물차의 공고대수 대비 선정 비율이 승용차보다 높았다. 화물차 선정잔여가 0으로 표시된 지자체도 75곳에 달했다.

다만 선정잔여는 실제 신청 가능한 차량 대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지자체마다 추가 공고나 접수 마감 시점이 다른 만큼 개별 지역의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전기차 보조금이 승용과 화물 등 차종별로 나누어 운영되는 구조와 맞물려 있다. 정부 역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승용과 화물로 구분해 편성했고, 지자체도 이를 토대로 차종별 보급 물량을 공고한다.

문제는 실제 수요가 당초 배정과 달라질 때다. 승용 물량이 남은 상황에서 화물 물량이 먼저 소진되더라도 남은 물량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면 한쪽은 물량이 남고 다른 쪽에서는 지원이 끊기는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택배 등 사업용 수요와 밀접하다. 정부도 소형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택배용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서 화물차 물량이 먼저 소진될 경우 차량 구매나 교체 시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K-뷰티 수출거점에 경주·제주 선정

중기부, 사업비 30억 투입
체험관·바이어 상담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K-뷰티 수출거점으로 경북 경주와 제주를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예산 30억원을 투입해 지방정부, 민간 컨소시엄과 함께 K-뷰티 진출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중기부는 ‘2026년 K-뷰티 수출거점 육성사업’ 지원 대상지를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K-뷰티 수출거점 육성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 지원 정책과 민간 인프라 및 전문성을 합쳐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국내 지역을 K-뷰티 글로벌 진출 기지로 키우기 위해 도입했다. 핵심 산업 분야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 중인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산 30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공모 방식으로 지원 지역을 선정했다. 경주와 제주=K-뷰티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 지이자 고품질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연 자원, 제품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연구·생산 시설, 홍보·마케팅 공간을 보유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해당 지역에는 수출거점 인프라 구축, 팝업스토어·체험관 운영, 수출·투자 바이어 상담 진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전문인력,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부 삼재운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뷰티 수출거점이 K-뷰티의 글로벌 진출 전략 다각화와 주변 지역 상권 활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업체 정책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